

노래부르며 '좋은 세상'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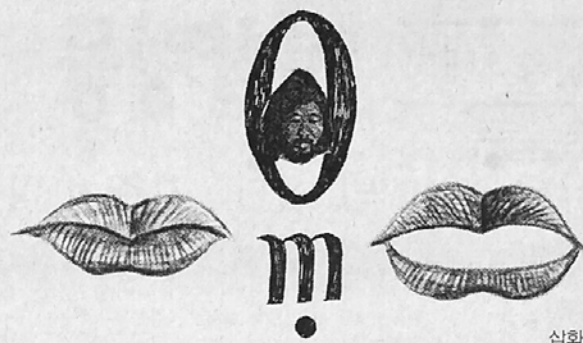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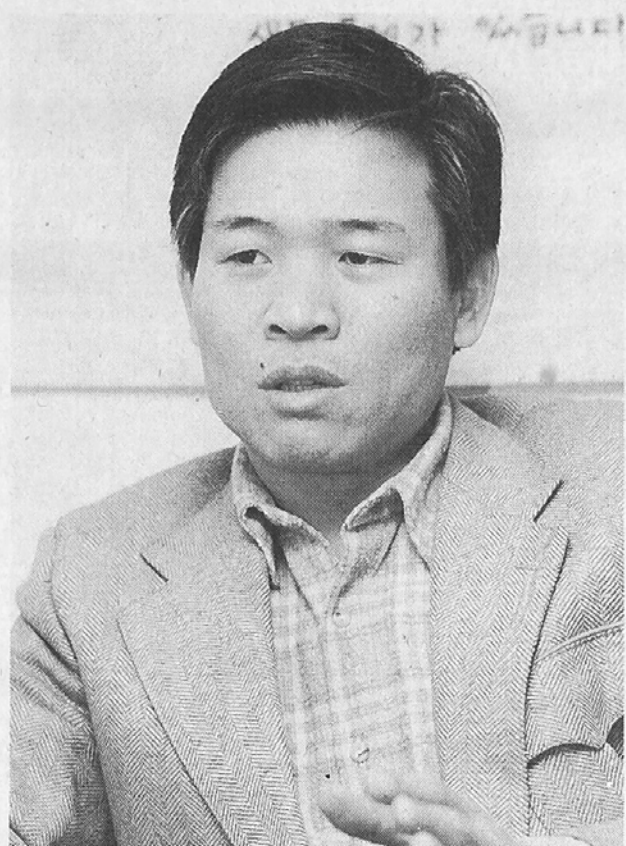
'송냥이 울음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옆의 풀벌레도 저리우니 석가세존이 다녀가셨나. 본당의 묵탁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어서 가자.'

우리시대 음유시인이면서 온몸을 던져 노래하는 음악 인생 20년의 정태춘(42).

문정동 한켠에 자리잡은 작은 건물 3층 '삶의 문화'란 팻말이 붙은 문을 때

정리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좋은 노래 못지 않게 좋은 세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는 사람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다소 우직스럽게 보이는 이 밑음이 그를 고독한 수행인으로 가요계에 남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큰 힘이다.

"이제 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개



신험 · 이기선

진리교, 우주의 참말씀 악용

신령스런 말이 오용되고 있는 세상이다. 진리의 말씀이 반역자의 선전으로 사용되는 시대다. 사탄들이 쓰는 말은 자기 생각을 바르고 아첨하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참다듬게 전해져야 하고 거룩한 음정으로 화음되어야 한다. 화음이 되지 않는 소리는 소란스런 굉음이다.

물 만들 때도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단말미적인 극악행위를 하고 있다. 음진리교가 바로 그것이다. 후지산을 바라보는 카미쿠이치 무라(上九一色村)에서 아사

이다. 온몸 지수화장을 생명살상의 기수로 만들고 있으니 가히 上九一色이라는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다. 이 마음에 魔障이라는 교주가 화학공장을 설치하여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공략하고 있으니 사탄으로서 오역죄를 행하는 일천재이다.

사이비 선전어로 사용

음(庵)이란 진언이다. 진언은 참말씀이다. 우주의 생명을 전파한 첫소리다. A.U.M의 화음이다. A와 U가 진광처럼 빠른 참나에 합음되면 O로 되고 O에 M이 합치면 Om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불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음이란 신성어, 생령이 진실을 오용하고 오염시키고 있으니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분법의 자리에서 참말씀을 짓는 악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유사종교 교구, 신종종교, 사이비종교의 교주들은 언어 표현을 교묘히 하여 사탄들을 흥리게 한다. 언어의 다의적 표현을 미화시켜 음악화하여 연약하고 최후력이 강한 듯 사탄을 사교의 성안에 끌어 들인다.

살상가스 제조 평화를 공격

이러한 세계의 잠정과 성취를 음(庵)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악함도 심함도 없다. 후회도 씩는 것도 심하게 살아있는 것도 없다.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하는 등의 차별상의 세계가 아니다. 오직 그 세계는 음이다. 한 마음이요, 한 깨침이요, 한 광명이요. 여래의 진실이, 여래의 밝음이 여기 이 마음 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음처럼 성스럽고 지순한 모음이 있을진가.

한번 끌려 들어간 사람들

교묘한 방편으로 밖으로 달려나가 지 못하게 울기미를 써준다. 울기미의 그늘에 얽힌 사람은 그 울리미 안에서 종속물이 되고 사교사술의 행위에 종속된다.

사교사술 행위에 종속

이 증폭적 생리를 악용하는 것이 사이비 교주의 기술이다. 이 기술자가 언어의 사법을 갖고 증폭무진 행위의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연극의 관람자도 이제 삼상의 세계에서 비판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 정법성, 공법성, 진리성이 있는가를 파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부여의 신실성이 결여되면 사교사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음의 진언을 악언으로 악주(惡呪)로 쓰고 있는 무리들을 독도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증생의 아우성같은 정서를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이르러 왔고, 둔탁하며 거친 것 같은 힘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느끼게 됐다.

일본의 사탄제조자의 사교

가깝지만 아니라 인간이 참진언의 음(庵)을 신비체계의 악곡으로 이용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다. 우리모두 우주의 생명성의 소리와 Om을 바르게 인지하는 불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길을 혼자 걷고 있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산문박의 禪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 씨

꿈이 열고 들어오니 우중래객(雨中來客)이라는 묵각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사무실이라 하지만 3층 토탑, 토기, 투박한 목각아, 뒤죽박죽 연상케하는 그릇과, 꽃그릇, 목다들이, 재봉틀, 책상, 도끼, 낫, 톱, 여러 종류의 칼, 전동 실타래, 풍가리, 초롱, 고블라디오 등의 잡동사니들이 즐비하다.

"우리 조상들의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는 참으로 순수하기 그지없는 무욕의 자유인처럼 느껴진다. 사치럼 음악처럼 살아왔으면서 전문음악인으로

인 개인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건지우는 사회환경도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음악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 봅니다."

그는 일찍이 기타를 만졌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악보를 볼 줄 몰라도 한번 들은 노래는 기타로 선율을 불렀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고민과 방황이 깊어졌다. 10월 유신 발표날 무작정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대학입시를 바로 앞둔 때였다. 그후에도 그는 갑자기 사발을 하거나 일년에 한번 꼴로 가솔

"나와 대중은 하나... 自存생각하니 억울"

가사 대부분 禪詩... 노래하는 순간 번뇌 사라져

집착하지 않는 삶이 그렇고 생활의 모습이 그렇다. 그에게는 고무신을 신고 허름한 차림으로 탁트인 광장에서 특유의 광범과 거친음성도 마다하지 않는 혼신의 노래가 있다.

"음악은 대중들의 삶이 숨쉬는 이야기 기둥이 담겨있어야 하죠. 가수는 노래를 통해 발원합니다. 제 음악은 사람들의 생각, 희망, 고통의 표현일 뿐입니다. 제 노래는 또 우리 민족의 힘찬 정서를 찾아내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삶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정태춘의 노랫말은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선적 정서, 출발의 시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요즘 무대 위에서 북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가요계 고독한 수행인

"사람들이 보기에 예전과 달리 거친 느낌이라 하는데 저로서는 그전에 못느꼈던 내면의 평화랄까, 다소 당당해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절한 구도과정을 이겨낸 수행자가 맛보는 평화로운 법열같은 것 같습니다."

정태춘씨는 자신의 변모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방황이

아왔다.

"뭘해서 먹고 살까? 포장마차를 할까?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마당'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을 가졌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경쾌한 국악노래 구상

"1987년 우리사회의 격변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순수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을 달리게 됐습니다. 다른 가수처럼 텔레비전에 안 나가고 순수성을 지킴으로서 자유인인 척했던 것이 실은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억울한 정태춘입니다."

그래서 1988년 겨울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음악가를 시도했다. 자기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 갔다.

"저는 가수지만 끝없이 대중들에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하라는 생각이었죠. 지금도 제 노래에 힘이나 이념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저의 대중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제 증생의 아우성같은 정서를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이르러 왔고, 둔탁하며 거친 것 같은 힘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느끼게 됐다.

다행히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마당'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을 가졌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서 국악도 되살리려 한다. 막연한 친밀감이 아닌 산뜻하고 경쾌한 국악을 시도해 이를 자신의 음악속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지금은 제가 열과 신명이 나서 끓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노래들이 제 공극의 귀결점이나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재상황이라 과장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사상 정무하다 할 만큼 세속적 만행을 서슴치 않으며 변화과정을 겪어온 정태춘씨.

그는 자신의 일에는 인정하고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용이 없는 소인배들의 그릇된 애착과 욕망을 질타하며 대중음악의 한복판을 헤쳐가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외롭기 마련이다. 그는 그의 길을 혼자 걷고 있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김원우 기자)

철사와 풀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흥법등은 종전의 몸체 개구부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부 작업이 결합된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기로 일일이 풀철을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각등의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은'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응하여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이외 장점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면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보람하는 **흥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2동 398-6호
전화: (032)613-4027-8 팩스: (032)665-0965

김정고시(4월·8월 연 2회실시) 국졸·중졸·고졸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

72세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설움을 딛고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 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 배우고 싶어도 기회와 시간이 없어 기회를 놓친 분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

국고졸업과정 한글반·회원 특별 모집

중고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희해설교재" 제공
- 학교수업서 "강희해설" TAPE 제공
- 1년 2회 시험 제도 "합입원제"
- 학력취득과정 "합리보장중점리 문제집" 제공

★ 등록지급

- ① 개인사정으로 학습기회를 놓치신 분!
- ② 짧은 기간 내에 졸업장을 갖고 싶은 분!
- ③ 배우고 싶어도 기초부족 시간이 없는 분!
- ④ 배우고 싶어도 기초부족 시간이 없는 분!

★ 졸업예정일

- 매년(4월 8월) 2년 기회(※성부시절 기준)
- 졸업후취업: 대학 학위 취득까지 특별관리합니다.
- 특전: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배정교수 제공
- **졸업자 전원 장학 혜택부여**

본원에서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 관리·지도합니다

95년 전원 졸업목표 <비디오 가정교사> 특별제공 (개인지도용)

62세 이상 초·중·고교인정자 격 특혜 영감 안도동하며 검정고시로 서울대합격 김진환 군 50세 쌍둥이 자매 못 배운 한 검정고시로 합격의 영광!

한글반 특별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02) 766-9222

인간교육의 꿈을 실현하는 **대한교육평가원(주)**
우110-410 서울 중구로 인의동 해운항인정빌딩 2층 218호

너무 영험해서 금서가 된 자미두수!!!

자미경 인명비경

인 이 름

자미도수 144도표판
'자미경 인명비경' - 인간통계학의 데이터베이스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우주적 인목을 바탕으로 수천년 이어온 인간 통계학이자 삶의 큰 흐름 자미두수!!!

중국의 자미두수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 체계화하고, 고대 중국인들의 인간에 대한 통찰을 현대화된 인간 통계학, 단순한 흥미위주의 역술서가 아니라 최초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된 전문 역술인을 위한 본 역술서이다.

실과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보다 쉽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실과도의 구성요소인 12궁과 12운, 보조성들에 대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의식구조에 맞춰 재해석하고 쉽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해당되는 명과 궁을 펼쳐보면 하연 개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석훈 031/7810000(한양대)

신령스런 자미경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미두수, 그러나 일반인들도 쉽게 자미두수의 신비한 비의를 깨칠 수 있도록 설명된 한글판.
김석훈 031/7810000

변화를 이끄는 지혜·주역

주역 연구사상 최초로 지동설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의 변화를 이용하게 해줄 경이로운 지혜!!!
서우신 056/6720000

서울시 중구로 이화동 133번지 **문학아카데미** TEL:764-5057, FAX:745-8516